
2022 vol.95 여름호

영중소식

Yeongdeungpo JoongAng Magazine



ycmc.church

2022 여름호 CONTENTS

발행처 영등포중앙교회
072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63
TEL. 02)2631-5721~2 FAX. 02)2631-5725

발행인 최태수

편집인 조영주 신승민

편집위원 김요한 김성일 최웅기 김선정 김성희b 박선숙 권지선

발행일 2022. 6. 26



은혜의 강단

04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최태수 목사**

평신도 칼럼

08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을 보내며... **박선주 집사**

故 이대운 장로 추모

11 **故 이대운 장로**님을 추모하며

12 추모의 글

스승님을 추모하며 **이경순 원로장로**

'선물' **이범석 권사**

목사 안수 소감문

16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신승민 목사**

신천장로의 글

18 장로 직분을 받으며 **박규현 신천장로**



<특집>자녀에게 주는 글

- 20 사랑하는 우리 하은이에게 정다혜 성도
- 21 사랑하는 현준, 현서에게 강명지 성도
- 22 사랑하는 도은아, 주은아 박진홍 권사
- 23 세상에 하나뿐인 슬안이에게 고광덕 집사
- 24 하나님의 큰 선물 차인숙 권사

퀴즈탐험 성경의 세계

- 25 엄마, 아빠와 함께한 퀴즈대회 이채운
- 26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한용석 권사
- 27 말씀이 등대가 되길 소망하며 황혜나

양육프로그램 소감문

- 28 성도의 삶 이철규 권사
- 29 신앙의 근본 다지기 이영순 권사
- 30 쉼마 성경인물탐구 홍귀호 권사
- 31 지구본 박광영 권사

목회자 칼럼

- 32 멋지게 크는 나무 유희용 목사

교회학교 소식

- 34 돌아온 영종랜드
- 36 유치부
- 38 유년부
- 40 초등부
- 42 청소년부
- 44 젊은이교회

영증게시판

교우소식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¹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²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³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⁴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⁵바로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⁶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⁷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⁸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⁹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¹⁰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1-10

담임목사 최 태 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졸업
- South East Graduate Association for Theology 선교학석사
- 미국 United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박사
- 필리핀 선교사
- 남서울대학교 교수, 교목
- 해성교회 담임목사
- 강남지방 감리사
- 현영등포중앙교회 담임목사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내 품에 꼭 간직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거나 아이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속상해합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만, 부모로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실패하고, 상처받으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부모가 자녀야 할 모습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집트의 바로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위협을 느낍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

*요게벳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진정한 길은 땅이나 강, 사람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요게벳은 남자아이를 낳았지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아이를 기르기로 합니다.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당연히 아이를 죽여야 하지만, 엄마로서 아이가 너무 예쁘고 잘 생겼기 때문에 도저히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요게벳은 3개월 동안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방긋한 웃음을 볼 때면 요게벳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아이를 몰래 키우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요게벳의 얼굴에는 근심이 쌓여 갔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뻐서 조금만 길러 보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발견되면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내 힘으로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요게벳은 아이를 키우 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게벳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요게벳은 그날 아침 아이를 따뜻한 물로 정성껏 목욕시켜 줬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에게 입히는 옷이 수의처럼 보이고, 아이를 실어야 하는 갈대 상자가 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요게벳을 바라보며 방긋방긋 웃었을 텐데,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은 미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서러워서 통곡하고 싶지만,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입을 막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보내야 할 때가 왔고, 요게벳은 아이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는 아침 일찍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눕히고, 그 상자를 나일강에 던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강가에 도착한 요게벳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상자가 떠내려갈 때 그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마 요게벳은 똥똥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며 다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 주세요. 우리 아이를 지켜 주세요.” 요게벳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진정한 길은 땅이나 강, 사람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셨고 부모의 손을 떠난 갈대 상자를 친히 구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뤄주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얼핏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거센 물살과 사나운 야생동물들이 상자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만난 것은 갈대 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인물을 ‘바로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분은 ‘바로 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므로 파라오가 인간의 딸인 외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 근친혼을 맺었습니다. 즉 성경이 소개하는 바로의 공주는 바로의 아내, 왕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의 왕비이기도 했던 공주는 바로가 이스라엘 민

족을 말살시키기 위해 남자아이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려온 갈대 상자 안의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비이자 공주라면, 왕의 정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주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공주는 물에서 건진 아이를 아들로 삼게 됩니다. 마침 요게벳의 첫째 딸 미리암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미리암은 공주에게 요게벳을 유모로 고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요게벳은 다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아 젖을 물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됩니까? 요게벳이 아침에 버린 아이를 오후가 되어서 다시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이 갖고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은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요게벳은 이집트 왕자의 유모가 되어 자기 아들을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의 군인들에게 아이를 들킬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 군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지켜 줍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요게벳의 마음은 이제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故 이병철 회장은 내 맘대로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미풍(발효조미료 제품)이 미원(경쟁사 발효조미료 제품)을 이길 수 없는 일, 골프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 마지막으로 자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입니

“

자녀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마음속에 탄식이 가득하지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손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

다. 자녀를 기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주지만 자녀들은 이 사랑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녀는 이 사랑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집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면 근심 걱정만 가득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자식과 부모 사이의 벽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탄과 근심이 자녀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요게벳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이를 맡겼습니다. 우리도 요게벳처럼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바라보며 염려와 걱정을 늘어놓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인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큼니다. 성도는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자녀를 믿음으로 맡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기르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자

녀를 주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모든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녀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마음속에 탄식이 가득하지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손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을 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기르셔서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이크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내도 소리가 멀리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작은 소리로 말해도 그 소리를 크고 멀리까지 나가게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자녀를 붙잡으며 고민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십시오. 내가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자녀를 크고 복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을 보내며...



박 선 주 집사
(중국 상해 거주, 잠시 한국 체류 중)

코로나 19 발생 후 우리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에 놀라고 적응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들과 필리핀에 있을 때 따알 화산폭발로 화산재가 온 동네를 덮었고 이로 인해 그곳엔 이미 마스크가 품절 된 상태였다. 곧이어 코로나가 그곳에 왔고 교회에서 급히 만들어 준 천 마스크로 한 동안 견디어야 했다. 가족 중 만 20세에서 60세 이하의 성인 한 명만 마트 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꽤 오랫동안 보낸 것 같다.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마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를 두렵게 했다. 그 당시 큰아이의 입시를 치르고 있었는데 재택근무로 학교 행정도 제대로 안 되고 공증업무를 해야 하는 영사관도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 바람에 문을 닫는 등 대학 입시 서류 마감 기한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나 불안했고 어수선했다. 그리고 중국도 필리핀도 출국은 됐지만 외국인 재입국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필리핀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필리핀 정부가 10명까지의 모임을 허가해 주어서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고,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친한 집사님과 같이 새벽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들려지니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들이 다시 해석이 되었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나그네 이방인인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필리핀을 떠나는 날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필리핀에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나왔다. 한국에 오니 너무 좋았다. 그동안 지냈던 필리핀에게 미안할 정도로... 아 모국이 좋다~. 2년 만의 귀국이라 더 좋았다.

한국에 온 나는 또 하나의 큰 과제가 있었다. 막내아들과 다시 중국으로 입국해야 하는 것이었다. 가지고 있던 중국 가족비자가 만료되어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유학비자는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여 51세의 나는 생각지도 않은 어학연수생으

로, 우리 막내는 중국학교 유학생으로 정말로 어렵게 다시 입국을 했다.

3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중국에 다시 적응하는 중에 한국에서 갑작스런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코로나에 감염되시고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고 한다. 그래도 의료강국 한국이니 잘 치료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나는 친정 오빠를 통해 간호사님께 부탁을 드렸다.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사랑한다고,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 사랑한다고...' 의식이 거의 없으셨던 상태라 아버지께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바로 한국에 갈 수 있었겠지만, 코로나로 재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 요양원에 계신 엄마가 무척이나 걱정되었다. 엄마가 상처를 크게 받으실 것이기에...

아버지...

중국 입국 전 한국에서 아버지와 보냈던 시간 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왔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에 왔을 수도 있었기에... 그리고 비자 발급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서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아버지께서 자주 곰탕을 사주시며 좋아하셨던 모습, 그리고 카페에 가서 시원한 팔빙수를 같이 드시면서 좋아하셨던 모습...

상해교회에서 위로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찬양을 같이 불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울지 않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난 와락 울고 말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주시리 /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노화로 인한 허리골절로 무척 힘들어하셨던 우리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허락한 년수를 다 마치고 지금은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아주 편안하게 기쁘게 계심을 믿는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셔도 열등감으로 혈기 충만한 아버지가 창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생일 때마다 머리에 손 얹어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신 아버지, 그리고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골방에서 기도하셨던 아버지 뒷 모습이 기억난다. 그리고 이사를 멀리 왔어도 허리골절 전까지 교회에 가서 주일성수를 하셨던 우리 아버지, 삼각산기도원에서 할아



“

하나님 저도 저의 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서고
또 그 이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게 해 주세요.

”

버지와 기도하러 가셨던 이야기를 해 주셨던 아버지... 아버지와 좋았던 추억들만 가득 생각이 났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너무 감사했다. 아버지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임을, 복음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나 그리고 우리 자녀로 내려옴이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아버지가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도 저의 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서고 또 그 이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게 해 주세요.”

한 학기의 어학연수 후 드디어 가족비자로 변경을 하고 아버지 집을 정리하기 위해 올해 2월에 한국으로 나왔다. 늦어도 4월에는 중국으로 다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런 상해 코로나 봉쇄 조치로 지금까지 한국에 있다. 아버지가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인 것 같다. 98년도에 중국에 간 이후 처음으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번 방문 중 나의 제일 큰 목표는 요양원에 계신 엄마와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양원도 오미크론으로 면회가 안 되다가 최근에 제한적으로 가능해졌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엄마에게 사랑도 표현하고 위로해드리고 싶고 또 천국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해드리고 싶다. 엄마는 많이 우울해하신다. 나는 엄마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하는데 엄마는 “그래” 하며 기쁨이 없으시다. 예전에 엄마는 지쳐 있는 내 옆에서 찬양을 불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선주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제는 내가 엄마를 붙들어줘야 할 때인 것 같다. 엄마가 고단한 인생길에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평안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란다.

코로나가 발생한 2년 동안 내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의 따뜻한 손길, 그분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상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다면 7월에 중국에 입국할 것이다. 다시 시작되는 중국 생활을 소망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故 이대운 장로님을 추모하며

이대운 원로장로께서 지난 5월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영등포중앙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평생을 섬기신 교회를 떠나 이제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후학을 위해 헌신하셨던 장로님의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며 우리도 장로님처럼 교회를 향한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창립 7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은 물론 국가와 세계를 위해 헌신하는 제사장 교회가 되고, 제사장 교인이 되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다짐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란다.”

- 영등포중앙교회 70년사, 2007, 이대운 장로 글 中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닌 영등포중앙교회는 나에겐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된다.”

- 영중소식, 2009, 이대운 장로 글 中

故 이대운 원로장로 약력

- 생년월일 : 1940년 11월 03일
- 소 천 : 2022년 05월 22일
- 학 력 : 연세대 화학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화학과 졸업(박사)
- 경 력 : 연세대 화학과 교수, 원주부총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등
- 신앙경력
1940.11 영등포중앙교회에서 유아 세례
1986.03 영등포중앙교회에서 장로 취임
2009.02 영등포중앙교회에서 장로 은퇴
- 신앙활동
교회학교 교사·부장, 당회서기, 성가대장, 장년공과지도, 창립70주년 기념사업회장 등
- 유가족
장남 : 이동욱 집사 사위 : 이범석 권사 손 : 이하민, 이다민
장녀 : 이동연 권사 손 : 조용진
차녀 : 이동주 성도



추모의 글

제자를 아끼고 사랑으로
교육하셨던
스승님을 추모하며



이 경 순 원로장로
(제5여선, 대림속)

이대운 장로님은 이화춘 목사님의 손자요 이태산, 김노순 장로님의 자녀로 1940년에 태어나셨으며 집안 대대로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아 영등포중앙감리교회 역사의 한 줄기를 기록하신 믿음의 스승이셨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이태산 장로님이 일본여행을 다녀오시며 하하하 웃는 웃음치료기계를 사 오셔서 온 교인과 함께 이야기하며 웃었던 일, 김노순 장로님이 카랑카랑하게 기도하시던 목소리도 아직까지 생생한데, 이제는 이대운 장로님의 모습도 추억으로만 떠올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멍멍해 집니다.

저와 장로님과의 처음 만남은 갓 제대하신 장로님이 중등부 교사로 오셨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울곧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중등부 학생 모두를 데리고 옛 영등포중앙교회가 있던 역 앞 빵집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 당시 학교 공부, 학생의 본분 등 많은 이야기의 장을 만들어 주셨고 때로는 화학, 수학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한강 이남 감리교회의 모교회인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남지방 배구대회를 했었는데 신흥교회와의 경기 중 열정을 다해서 응원하시다가 심판의 오판이 있자 앞장서서 이야기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는 피카디리극장에서 영화도 보여주시고, 백궁갈비탕을 사주시면서 입학을 축하해 주시던 감사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저에게는 ‘장로님’ 보다는 ‘선생님’이란 호칭이 더 익숙한 분이셨으며, 신앙의 선생님, 믿음의 동역자, 더 나아가 인생의 본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이대운 장로님의 열정과 헌신은 어디서나 그 영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학교부장, 성가대장, 당회서기, 장년공과지도 5년, 문화부장, 70주년 기념사업회장, 사회봉사부장 등을 책임하셨고 사회에서는 연세대 화학과 박사님으로 연세대 화학과장, 총무처장, 이과대학장, 원주부총장, 국제화학올림픽아드 조직위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한림원 감사직까지 많은 직분을 감당하시던 열정적이신 분이셨습니다.

코로나로 요양병원 면회가 되지 않아 차
일피일 만남을 기다렸고, 이제는 요양병원
에 가 볼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마음도 잠
시, 이대운 장로님의 소천 소식은 저에게
는 많은 아쉬움과 죄송함뿐이었습니다. 이
젠 천국에서 이은신 장로님(누님), 유의경
권사님(부인)과 함께 기쁨의 상봉을 하시
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을 베푸시
던 은사님을, 존경하는 장로님을 우리의 머
릿속에 가슴속에 추억으로 묻는 일은 몇 번
을 거듭하면 괜찮아질까요.? 이런 일은 매
번 처음 같고 늘 아쉽기만 하면서 여전히 부족했던 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 위로부터 두 번째 줄 우측 끝 이대운 장로님, 같은 줄 좌로부터 7번째 필자, 세 번째 줄에 황을성 목사님, 이강욱 장로님의 모습도 보인다.

훗날 저희들도 천국에서 이대운 장로님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벌써 그립습니다.

‘선물’

선물 같은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 많은 선물들을 나누고
하늘나라로 가신 **이대운** 장로님을 추모하며 이 글을 씁니다.



이 범 석 권사(만사위)
연세대학교 RC융합대학 교수 · 부학장

이대운 장로님 발인예배 시 최태수 담임목사님 설교 제목이 ‘주의 종’이었습니다. 장례 기간 중
고인의 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감동 중이었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그 핵심을 대변해
주시어 더욱 은혜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말년에 병원에서 투병 중이실 때 교회에 가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장로님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자식들은 어떻게 하든 좀 더 좋은 요양시설에 모시고 코로
나 면회 제한이 풀려서 그렇게 따르는 교회와 연세대학교의 후배, 친족들과 직접 대면하실 수 있는 시간
을 만들고자 기도하며 노력했었습니다. 나중에 영정사진으로 조문 받기 전에 거기에 오실 분들을 실제로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달랐고 임종 직전 저희 손주와 자식들 7명 전원과



▲ 2004년 교회에서



▲ 2006년 장로모임



최대수 담임목사님과 김성중 부목사님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로하시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뭘 알고 답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여기도 천국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시선으로 글로 남기고자 하는데 제가 작성하는 이유는 그 세 가지 시선에 제가 다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회의 시선입니다. 이대운 장로님 할아버님이 우리 영등포중앙교회 4대 담임 이화춘 목사님이었고, 할머니님이 박노득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이태산)과 어머님(김노순) 모두 장로님이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930~40년대 태어난 사람이 이미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낳고 자란 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으시고 교인들을 섬기며 사랑과 존경을 나누셨습니다. 그 모교회 담임목사님의 임종예배와 천국환송을 받으셨고, 많은 교우님들의 애도 속에 인생을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의 시선입니다. 이대운 장로님은 연세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하셔서 학사, 석사, 박사, 교수, 총무처장, 대학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마지막 떠나실 때까지 뿔속까지 연세인으로 사시다가 전 현직 총장님들, 부총장님들, 수많은 제자들의 조문과 환송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인산회’라는 제자 모임은 직접 박사학위를 배출하신 분석화학자 조직입니다. 이대운 장로님이 스승이지만 정년퇴직하신지가 언제인데 마지막 묻히는 곳까지 따라와 슬피 울고 내년 1주년 추도식은 본인들이 한다고 자식 이상으로 하시는 것을 보며 “이 장로님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친족의 시선입니다. 이대운 장로님 형제분들로는 故 이대성 교수님(침례교인, 연세대학

교 지질학과, 이과대학장 역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으신 故 이은신 장로님, 이재신 사모님(부군 故 김소영 목사님), 이영신 권사님이 계신데 모두 5남매셨고 이 중 막내아들이셨습니다. 대개 형제가 여럿 있으면 특별히 잘 되는 형제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이대운 장로님 형제분들은 한 분도 신앙의 이탈자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교계의 지도자로서 모범이셨습니다. 5남매 전원이 평생을 하나님께 붙들려 사셨고 품위와 격조 있는 삶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나온 후손들이 모두 예수님 잘 믿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배우자는 또 누구였습니까? 故 유의경 권사님께서 6년 전 하늘나라에 먼저 입성 하셨지만 유 권사님께서도 한국 장로교회의 거목이셨던 故 유호준 목사님의 맏딸이셨고, 연세대학교 화학과 캠퍼스커플이셨고 화학자 동료요, 교회의 동역자셨습니다. 제 기억에 장모님이신 유의경 권사님은 TV에 나오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가장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아마도 이대운 장로님은 배우자의 이 장점 하나만으로도 집 안팎에서 참 즐겁게 사셨을 겁니다.

위의 세 시선으로 봤을 때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이분은 여기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사셨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6.25 전쟁 전에 태어나셔서 그 격랑의 세월 동안 주님의 축복 속에 사셨던 이대운 장로님께 받은 선물이 저도 이동연 권사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깨달음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뢰 속에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었습니다.

이번 이대운 장로님 장례 기간 중 모두 5회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 목회자님들과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4대째 영등포중앙교회를 섬기니 저희 아이들은 5대째인데 이 기간 중 여러 예배를 통해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도 장차 우리 교회를 지킬 것 같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신 승 민 목사

목사로서, 사랑하는 영등포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려 하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영증소식지를 통해 짧게나마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 영등포중앙교회는 모든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 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유아세례를 받아, 신앙생활 및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아 감리교신학대학교까지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등포중앙교회에서 제 인생의 동반자(이스라)와 백년가약의 약속을 올렸고, 딸(소을)의 유아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등포중앙교회 소속으로 목사 안수까지 받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최태수 담임목사님의 사랑과 배려로 이곳에서 첫 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있어 영등포중앙교회는 모든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부모와도 같은 교회입니다.

안수를 받으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많은 분께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황을성 목사님부터 김진두 목사님, 그리고 현재 최태수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저의 영적 아버지와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동기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처럼 많은 영적 아버지와 선배, 그리고 동역자를 둔 사람이 적음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특별히 연로해지셨거나, 이미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천국에서 쉼을 누리고 계신 원로 성도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으며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모든 성도님의 얼굴도 떠올랐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선배 목사님들과 영등포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보답할 길에 대해 생각해볼 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저의 첫사랑과도 같은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안수를 받으며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재철 목사, 흥성사)이라는 책의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교인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목사의 심령에는, 그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교인)에게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사야 50장 4절에 나오는 ‘나’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신승민에게 주사
신승민으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신승민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 이사야 50장 4절 -

여전히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젊은 목사이지만,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살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장로 직분을 받으며



박 규 현 신천장로
(제5남선, 서교1속)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귀한 일입니다. 사회적인 직위나 직책과는 달리 희생의 마음으로 받아야 하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영광스러우며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도록 선택 받았습니다. 어떤 직분이던 하나님이 주시고, 교회가 세워주고, 교인들에 의해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구원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등포중앙교회에 위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체험과 간증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와 교제가 소홀해졌습니다. 예의와 도덕은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신앙의 체험과 간증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있는 교회,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선교사로부터 전파된 그리스도 성령의 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총을 베풀고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는 낮은 곳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실천이기에 선교를 위해 힘쓰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소명과 평신도의 봉사가 잘 어우러질 때 좋은 교회가 됩니다. 봉사는 받들고 섬기는 일이며 모든 봉사는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입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일꾼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적, 사회적인 판단에 앞서 순종의 신앙으로 섬기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하리라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정직하고 모범적이라는 생각으로 의협심을 보이고, 목소리를 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화평을 깨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겸손히 행하고 교만치 말라는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장로 직분 합당한 모습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은**이에게



정 다혜 성도
(제17여선, 영종3속)

하은아. 어느 봄날 밤, 너와 함께 목련꽃을 올려다보던 계절이 지나고 어느덧 여름이 찾아왔어. 이 여름이 또 금방 지나면 하은이가 엄마, 아빠 곁으로 온 지 2년이 되어 가. 엄마의 기억 속에서 평생 간직될 9월을 우리 하은이도 기억하고 있는지. 분만실에 흘러나오는 찬송과 함께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오던 네가, 엄마의 품으로 안기던 그날. 너의 따듯한 온기와 울음소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굽게 빚어주신 너의 손을 꼭 잡아보던 날도, 너의 작은 입술이 '엄마'라는 모양으로 힘차게 움직일 때에도. 하루하루 다른 몸짓과 눈짓으로 엄마와 아빠를 행복하게 해 주었던 너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명해. 엄마, 아빠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하은이와 함께 경험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단다.

요즘 엄마가 가장 설레는 일은 너와 함께 집 밖을 나설 때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아기띠 속에 너를 꼭 안고 외출을 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 하은이가 엄마와 아빠 손을 꼭 붙잡고 나란히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벅찬 일인지 몰라.

너의 작은 눈동자가 움직이는 풍경들을 바삐 쫓아갈 때, 낮설지만 새로운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와' 하는 너의 작은 탄성을 들으면, 엄마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든단다. 아직은 엄마의 도움으로 신발을 신어야 하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신발을 찾아 신고 씩씩하게 나설 너의 모습이 기대가 되기도 해. 그때가 되면 바깥의 풍경이 많이 익숙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랄게. 언제나 처음을 대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길 바랄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 준 하은아. 우리의 소망은 부디 네가 예수님께 쓰임 받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물론 엄마와 아빠도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 뜻을 행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 주님과 동행할 너의 모든 날을 응원해.

오늘도 굳히 잠든 너의 곁에서 감사드리는 밤.

주님의 꿈속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은이의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현준, 현서에게



강명지 성도
(제17여선, 영중3속)

하나하나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나를 엄마라 부르고, 매 순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보며 울컥하기도 해.

엄마는 김영봉 목사님의 '사권의 기도' 책 내용에서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유산이요. 나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요. 나의 가장 큰 희망이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글귀가 인상 깊었어.

김영봉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라고 순간순간 기억하고 떠올리면 힘들 때나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행복하더라고.

너희들에게도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신앙,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너희들과 우리 가정이 되길 항상 기도해.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뽀뽀해주고 껴안아주며 사랑 표현해 주는 너희들 덕분에 매일 웃음이 난단다.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고, 더 많이 사랑할게♥

사랑하는 도은아, 주은아



박진홍 권사
(청장년선교회, 서교2속)

아빠는 두 딸들에게 고마운 게 참 많다.

왜냐하면 너희를 통해 '감사함'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야.

너희 둘이 태어난 첫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구나! 너희의 힘찬 울음소리가 조마조마한 걱정을 뚫고 크게 들리던 순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지... 이후로 너희가 자라면서 처음으로 기고 서는 날 우린 너무나 감사했다. 작고 귀여운 너희 목소리로 엄마 아빠를 처음 불러주었던 날 세상의 그 어떤 표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 둘을 통해 하나님을 더 느끼고 알 수 있었다는 점이란다. 도은이와 주은이의 선한 눈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너희의 귀한 존재, 생명의 신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작게나마 알 수 있게 되어 무척 감사한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 너희의 순전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도은아, 주은아! 늘 주님 안에 건강하게 자라다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너희가 알게 되어서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하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되고 결심이 되길 바란다.

오늘도 굳히 잠든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보게 되는구나. 천국을 함께 나눌 너희가 있어 너무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며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도은이, 주은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가

세상에 하나뿐인 슬안이에게



고 광 덕 집사
(제6남선, 등촌속)

안녕, 아빠야^^

얼마 만에 우리 아가에게 손편지를 쓰는 건지... 굉장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긴장되는걸.

그래도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글을 시작한다.

2006년 6월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빠와 엄마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보내셨지. 그날의 감동이 어제 일 같 은데... 우리 슬안이가 벌써 고이 되었구나. 부모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아빠와 엄마는 하나도 힘 들지 않았단다. 아니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우리 아가를 보며 다 이겨냈다고 하는 게 맞겠다^^ 그만큼 아빠 와 엄마에게 우리 슬안이는 슈퍼 예너지!!

아가, 지금 너는 인생이라는 마라톤 코스에서 출발선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에 있단다. 경주를 하기 전에 선수들이 준비운동을 하듯이 너 또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빠가 그 준비운동에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준비했 단다. 아빠가 학교에 다닐 때 도덕 교과서에 있던 내용인데 너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사람은 크게 세 가지 유형,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단다.

'든 사람'은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든 사람을 말하고,

'난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난 사람을 말하며,

'된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고 됴됨이가 된 사람을 말한단다.

아빠는 우리 슬안이가 '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단다. 물론, 지성도 쌓아야 하고 잘하는 것도 있으면 더 욱 좋겠지. 하지만, 그 순서를 바꾸어서 너를 만들어서는 안 된단다. 바른 인성과 따뜻한 마음씨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렴. 아빠와 엄마도 그런 너를 위해 기도하고 늘 함께 할 거란다. 더불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네가 좋아하고, 네가 행복한 일을 하기 바란다. 그런 모습이 아빠와 엄마가 바라고 기도하는 너의 모습이란다.

사랑하는 아가!

아빠와 엄마는 든든하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널 믿으니까.

알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너 자신이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끝으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일부를 적으면서 편지를 마무리할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6~18)

사랑과 존중을 오롯이 담아, 아빠가

하나님의 큰 선물



차 인 숙 권사
(제12여성, 대우2속)

엄마가 25살 때 하나님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주세요.'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소정리와 승찬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하는 기도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에게 좋은 아내도 그리고 엄마 딸 소정리와 엄마 아들 승찬이에게도 좋은 엄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소정리와 승찬이는 엄마를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가족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김인숙 권사님, 김신익 권사님, 정낙배 권사님, 김경희 권사님을 매주 보내주시어 소정리와 승찬이 그리고 엄마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세 명은 이제 모두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잘 통하는 것이 참 감사해요.

요즘 엄마가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새벽 김성중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징계라고 하는 회초리를 통해 내 안에 가지 쳐야 할 것을 주님께서 잘라내시고 가려 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뼈아픈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최태수 담임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면서 여쭙보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연습을 매일 해보도록 해요.

제2회

퀴즈탐험 성경의 세계

전교인 대상 성경퀴즈대회 '퀴즈탐험 성경의 세계'가 6월 5일(주일) 2시,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아쉽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작년과는 달리 현장에서 더 뜨거운 열기를 체험할 수 있었고, 최대 3명까지 가능한 팀 구성은 함께하는 재미를 더하였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이 마태복음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더해져 풍성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배우고 익힌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영등포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대상 : 한용석 권사, 윤미연 권사, 한시운(초3), 금상 : 박만기 집사, 최희강 집사, 최서진(초2)
은상 : 이영순 권사, 정석님 권사, 백연자 권사, 동상 : 이철규 권사, 이현민(고2), 황혜나(고3)

소감문

엄마, 아바와 함께한 퀴즈대회



이 채 운
(유년부, 초3)

성경 퀴즈대회 2주 전부터 매일 성경공부를 했다. 예상 문제지를 하루에 한 장씩 보며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당일이 되어 교회를 갔다. 드디어 시작했다. 나는 최대한 열심히 했다. 모르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여쭙보았다. 어떤 것은 찍었는데 맞았다. 본선 진출!! 그런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나는 1번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4번이라고 해서 4번을 적었는데, 4번이 틀리고 1번이 맞았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년센스 퀴즈도 아는 문제였지만 손을 늦게 들어서 맞추지 못해 아쉬웠다. 대신 행운권에 엄마가, 다음에는 아빠가 추첨이 되어서 문화상품권 2장을 받아서 참 좋았다. 성경퀴즈대회를 준비하면서 성경말씀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이 많았다. 앞으로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할 것이다.



소감문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한 용 석 권사
(청장년선교회, 영중1속)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던 '퀴즈탐험 성경의 세계'를 이번에는 교회에서 직접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 가족들과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성경퀴즈를 너무 좋아하는 아들 덕분에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 성경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말씀을 읽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은 청소년부에서 따로 팀을 꾸려 나간다는 말에 나머지 가족이 한 팀이 되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과 아내와 같이 퀴즈대회에 한 팀이 되어 나간다는 것은 가장으로서 더욱 도전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성경을 자세히 알게 될 기회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말씀을 읽고 서로 퀴즈를 내어 문제를 맞추는 일은 바쁜 와중에도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무언가 어께가 으쓱해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에 시간을 쪼개어 말씀을 읽을 때, 알고 있었지만 다시 깨닫는 진리에 감동하고, 모르고 있던 말씀에는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는 일들이 너무 뜻깊었습니다.

가족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재미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마태복음을 한 번에 쭉 읽었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과 소중한 천국의 복음,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각자가 느낀 점도 서로 나누고 서로의 마음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퀴즈대회를 준비하며 의무감과 부담감보다는 감사함과 사랑을 깨닫는 너무 즐거운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력했던 순간을 기억하시고 베푸시는 축복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말씀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말씀이 등대가 되길 소망하며



황 혜 나
(청소년부, 고3)

지난 5일 '퀴즈탐험 성경의 세계'에 참여했다. 평소에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천하기가 늘 쉽지만은 않았는데, 딱 일주일 동안 퀴즈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니 평소보다 좀 더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었던 것 같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막상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다시 읽다 보니 때로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몰랐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평소에 아는 말씀도 다시 읽어보니 전에 읽었을 때와 다르게 아주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다.

주일이 되어 본당에서 퀴즈 대회가 열렸는데, 어린이와 함께하는 팀부터 청소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팀, 어른들로만 구성된 팀까지 모두 한곳에 모여서 성경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퀴즈 준비를 많이 못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팀 선생님과 동생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고민하니 꽤 멀리까지 갈 수 있었다. 모르는 문제에는 터무니없는 답을 적어서 틀리기도 했지만, 예선에서 받은 부활권으로 부활해서 결국 동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다! 동상을 받은 것도 물론 기뻐지만, 성경 퀴즈에서 순위권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됐다는 사실이 더 좋았다. 수상을 했던 아쉽게 하지 못했든, 모두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말씀 묵상을 생활화했으면 좋겠다. 퀴즈가 끝났다고 읽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퀴즈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등대가 되길 소망한다.



성도의 삶

나태한 신앙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준 토요 성경 공부



이 철 규 목사
(청장년선교회, 영중2속)

‘성도’의 삶’은 토요일에 진행되는 성경공부로 청장년 이상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장년 대상의 성경 공부반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갔으나, 내가 성실히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망설여졌습니다. 망설이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조진옥 권사님께서 시작하면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약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의 시작은 목사님이 주제를 소개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 후, 교재의 질문들을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구원, 회개, 예수님 등과 같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교리부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예배만 참석하면 얻기 힘든 지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성경과 신앙에 대한 과외공부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독교 IPTV C채널에서 방송되는 ‘성경 공부 과외하기’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좋았는데 이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연습의 시간이 필요하듯 좋은 성경 공부를 위한 숙제가 매번 있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미리 준비해주신 동영상과 교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인데 준비하는 수고로움이 다소 있었지만,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그 수고로움의 몇 배가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세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세상의 때가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았고, 나태한 나의 신앙생활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인도해 주신 최태수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알게 된 성도분들과 친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신앙의 활력소가 필요하신 분들께 ‘토요 성경 공부반’을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근본 다지기

영적 내면을 단단하게



이 영 순 권사
(제10여선, 신도림속)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벌써 코로나와 세 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지만, 늘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생활의 불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절로 느껴집니다.

한 학기 동안, 김성중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근본 다지기'에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공부하였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메모하고 경청했습니다. 오래 겪지는 않았지만 김성중 목사님은 참 순수하시고 무슨 일에도 열심히 훌륭한 목사님임에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이번에 함께 가르치시고 또 배우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되어 차마 빠질 수도, 한눈 팔 수도 없어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함께하신 이연수 권사님, 정석님 권사님도 같은 생각이실 줄 믿습니다. 김성중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성중 목사님과 성경 공부는 이번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올 초 신풍교회에서 있었던 사경회에서도 성경 강해를 들었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동안 교회 문도 닫혔다 열렸다가 반복하며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때가 있었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 내면은 좀 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근본 다지기'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접해야 하겠지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 서로서로 권면해서 다음 학기에는 자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쉐마 성경인물탐구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홍 귀 호 권사
(제8여선, 효성숙)

살아 계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쉐마 성경인물탐구'의 은혜를 나눕니다.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하는 동안, 나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말씀 앞에 설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영상 예배와 기도, 쉼마 성경인물탐구와 말씀 묵상, 찬양 등으로 자신을 추슬러 갔습니다. 주님은 내가 서 있는 곳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한 치 앞을 못 보고 교만했던 나의 민낯을 보게 하셨습니다. 회심하고 토로하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질문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케 하신 주님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하나하나 일깨우시며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자 안식과 평안이 왔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쉐마 성경인물탐구'의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 등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인생의 마스터키' 같은 말씀입니다. 신약 인물들 가운데 '누가'부터 '세례 요한'까지 탐구했습니다. 김성중 목사님이 매주 진솔하고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회심한 이야기. 의심하던 도마였지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확신을 주시던 이야기.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의 이야기. 바울과 바나바의 가슴 아픈 이야기. 보비 집사의 결단과 헌신으로 로마의 선교 길이 열렸던 깊이 있는 이야기 등은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주님의 섭리와 뜻대로 오차 없이 인도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듣고 배운 말씀들이 교만하거나 왜곡되지 않고 잘 숙성되어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을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가을학기 강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말씀을 위해 수고하신 김성중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편집과 인쇄물 작업을 위해 애써주신 김민기 목사님과 신승민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말씀과 소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구본

지도로 구약을 보는 성경공부



박 광 영 권사
(청장년선교회, 영중4속)

지도로 구약을 보는 성경공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역사 위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구본(지도로 구약을 본다) 성경공부는 매주 토요일 오전11시에 온라인교육(Zoom)으로 4월 9일부터 진행했으며, 사전 교재와 성경의 범위가 제시되고 지도를 통해 그 역사를 따라가면서 함축되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교육과정입니다. 본 과정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던 관점이 아닌, 지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구약의 함축된 내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구본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구약하면 삼손, 다윗, 솔로몬 등 인물들의 활약상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그 외 소개되는 사사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보에 대한 내용 등은 상대적으로 흥미가 떨어져서 생략하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나의 기준에 다소 거부감이 드는 내용도 있어 무의식적으로 피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본 성경공부를 통해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약을 지도와 함께 공부하다 보니, 함축된 글 속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삶과 야훼 신앙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는 그냥 무시한 채 지나왔지?’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무관심했던 많은 구약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살아나 나의 인생에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사사기의 알고리즘과 사사들, 사울의 군사왕국과 통일왕국(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어지는 분열왕국, 이 역사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변함없이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본을 통해 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깨달은 삶의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살 때는 위기 앞에서 큰 혼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잊을 때 작은 위기 앞에서도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삶을 산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감지하게 되면 그 즉시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지도로 구약을 보는 성경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멋지게 크는 나무



유 희 용 목사
(한국기독교 청소년선교회,
영등포중앙교회 소속목사)

어렸을 적 내가 뛰어놀던 곳은 강원도, 어느 깊은 두메산골이었습니다. 지금은 전기도 들어오고 가끔씩 자동차도 오가게 되었지만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십 리나 되는 먼 산길을 걸어서 통학을 하곤 했습니다. 겨울에는 푹푹 얼어붙은 강가를 따라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눈 덮인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뒷산과 앞동산,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던 시냇물, 마을을 휘감고 돌아 흐르는 북한강을 떠올리다 보면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기조차도 없이 반딧불을 친구삼아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하던 그 시절, 순수 자연인으로 살던 어릴 적 추억이 새롭습니다.

학교라야 교실 세 개,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까지 세 분뿐이었고, 학생 수는 고작 30여 명인 작은 국민(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마치 꿈동산과 같은 그 학교에서 찢어진 고무신을 꿰어 신고 보자기로 만든 어깨 가방을 둘러메고 몽당연필에 침을 발라 글을 쓰며 공부하던 일도 생각납니다. 스물두 살 여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때론 얼굴을 빨갱게 붉히기도 했던 기억들. 그 예쁜 선생님의 품속에서 꿈을 키웠던 때가 무척이나 그림기도 합니다.

학교 갔다 돌아올 때면 냇가에서 떡을 감기도 하고, 버들피리 만들어 친구들과 합주도 하며, 송사리며 가재를 잡아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초봄 개울 물 얼음이 반쯤 녹을 때면 노랑게 배가 부른 채 바위 밑에 숨어있던 개구리도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였답니다. 계절에 따라 산딸기와 버찌, 오디와 다래를 따 먹으며 새까맣게 물든 입술과 헛바닥을 널름 거리며 친구들과 한바탕 배꼽 잡고 깔깔대던 일이 었그제 같습니다.

TV는 물론 라디오뿐 아니라 게임기나 오락기 하나 없던 시절, 나의 어린 시절 놀이는 오히려 풍성했습니다. 자치기와 제기차기, 팥따먹기와 다방구 놀이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어둑어둑해져야 끝을 내곤 했었지요. 손발은 물론이고 바짓가랑이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어머니께 꾸중 듣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를 몰고 밭일을 돕던 일, 아궁이에 불을 때며 밤이나 고구마를 구워 먹던 일, 겨울이면 땅속

에 묻어 두었던 무를 꺼내 껍질을 벗겨 먹던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세상의 어떤 과자보다 맛있는 간식거리였습니다. 화롯가에 오손도손 둘러앉아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상상의 세계를 오고 갔던 일, 그러다 어느새 할머니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어 단꿈을 꾸던 시절, 할머니의 사랑도 그립습니다.

그런데 6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까지도 나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 바깥마당에 우뚝 서 있던 전나무 한그루입니다. 그 전나무는 무척 곧게 뻗어 있기도 했지만, 사시사철 푸른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무더운 여름날 살인적인 피약별도 견뎌내고요. 한겨울 내린 눈을 겨우내내 덮어쓴 채 깨끗하고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었답니다.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불평불만 한마디 하지 않고, 힘든 내색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전나무를 바라보면서 참 멋진 나무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마중 나오는 강아지도 반가웠지만, 늘 그 자리에 믿음직한 자태를 뽐내며 푸르름과 싱그러움을 간직한 채 서 있던 전나무는 어린 시절 시골 아이에게는 큰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은퇴를 앞둔 나는 지금도 가끔씩 지그시 눈을 감고 그 전나무를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무에도 피약별과 폭설은 무시로 내립니다. 분명 금년에도 내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피하려 하거나 축고 덤게 사는 것을 마다한다면, 바람 부는 것을 불평한다면, 그 나무는 멋지게 크는 나무는 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은 마음 쓰기에 따라, 하는 말과 쓰는 글에 따라서, 또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색깔이 달라 집니다. 마치 온갖 풍상을 겪은 나무일수록 나무줄기와 열매의 빛깔이 아름답듯이 말이죠. 아마 열매의 맛도 다르겠지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전나무처럼,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위로와 기쁨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 남은 여생을 무성한 잎으로 그늘도 만들고 예쁜 꽃으로 환한 세상도 만들고, 풍성한 열매로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라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나는 어릴 적 바깥마당에 깨끗하게 서 있던 전나무를 떠올리며 오늘도 그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봅니다.



돌아온 영중랜드



2022년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영중랜드'를 진행했습니다. 영중랜드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배 후 게임과 만들기 시간을 통해 미션을 완수하기도 하고 선물을 받아보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근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중랜드를 진행하기 어려웠는데 올해 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다는 소식에 영중랜드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영중랜드를 신청한 아이들과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아이들까지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배와 식사를 마친 후 사회교육관 지하 1층에 모여 영중랜드를 시작했습니다.

영중랜드
지하 1층에는
아래의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석궁양궁놀이#농구
#왕제기#낙시#만들기
#블럭놀이

이번 영중랜드는 사회교육관 지하 1층과 2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만들기와 간단한 게임들을 2층에는 활동적인 게임들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원하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이니 4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장소를 가득 채운 모습과 함께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아이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석 장난감을 이용해 천장까지 쏘아 올리기도 하며 순위를 다투는 게임에서는 열정적인 모습을, 만들기 반에서는 작고 고운 손으로 만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인원이 모여 예배드린 것과 활발한 교회를 다시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즐겁고 재미있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행사들을 통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중랜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신 교사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등포중앙교회의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교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1

유치부

사랑 가득, 즐거움 가득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2022년 4월 10일 종려주일, 유치부 영중새싹 친구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마 21:1~11)을 생각하며 만들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전에 활동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껴 드리자는 의미로 종이옷을 꾸몄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한 종려나무 가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설교 진행에 따라 어린이들은 블록으로 예루살렘 성전 벽을 만들고 자신이 그린 종이옷을 바닥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며 예루살렘 성전 주위를 걸어보았습니다. 영중새싹 친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고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

어린이 주일은 한층 더 기쁨에 차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에 늘 기대가 됩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은 코로나로 만나지 못했던 아이들의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어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북적북적한 예배당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교사와 아이들은 풍선이 가득한 곳에서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월 생일자를 위해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는 선물도 받는 즐거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부모님 감사해요♥

5월 8일은 아버지 주일이었습니다. 설교시간에 영중새싹 친구들에게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놀아주는 거요.,” “엄마 아빠랑 교회 오는 거요.” 등의 여러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중새싹 친구들은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로 마음을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활동 시간에는 카네이션 머리띠를 만들어 쓰고 직접 꽃이 되어보며 부모님께 드릴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영중새싹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02

유년부

사순절-부활주일 어린이 나눔 예배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유년부는 종려주일(4/10)과 부활주일(4/17)을 맞이하여 두 번에 걸쳐 어린이 나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어린이 나눔 예배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교회 절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히 어린이 나눔 예배에 참여한 유년부 어린이들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인터뷰를 보시며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년부 영중소식 특집예배 인터뷰

1 기억에 남은 순간이 있었나요?



박도은(초3)

그림을 골라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좋았어요. 저는 나사로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림을 골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금방 나아기 때문이에요. 감사했어요.



최은영(초2)

"호산나!"하고 외쳤던 게 기억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재미있었어요.



박창권(초2)

마이크로 그림을 고른 이유를 설명한 게 재미있었어요.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2 특별예배에서는 어떤 말을 했었나요?



박창건(초2)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요.

3 사순절과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설명해주세요!



최은영(초2)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일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기억하는 시간이예요.

4 특별예배를 드린 소감을 말해주세요!



박도은(초3)

부끄러웠어요. 엄청 엄청요.
엄청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말했어요.

5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박도은(초3)

천국이 정말로 있는지 궁금해요.
어제 악몽을 꿴데 무척 속상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이 있는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박창건(초2)

재미있었고 설렐었어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박창건(초2)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최은영(초2)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 박도은 그림



▲ 박창건 그림



▲ 최은영 그림



03

초등부

고난을 넘어 부활로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을 위한 웅크림입니다. 고난을 통해 죄로부터 깨끗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영중 초등부에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리고 5월은 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자기(自己)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운 영중나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주일

4월 17일, 영중 초등부 어린이들은 사순절을 보내며 맺은 묵상의 열매를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5G는 사순절 묵상집'이었습니다. 묵상집에 적힌 내용을 보니 어린이들이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묵상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매우 밝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드려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달걀에 관련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등부 어린이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아버지 주일

영중 초등부의 5월 목표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빛어지는 어린이'입니다. 초등부 어린이들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주 안에서 바른 어린이'를, 아버지 주일을 보내며 '부모님께 힘이 되어주는 어린이'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일에는 가족 마인드맵과 사랑 나눔 쿠폰을 제작하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사 간증 예배(문혜빈 선생님)

5월 셋째 주 예배는 초등부 교사인 문혜빈 선생님의 간증 예배로 드렸습니다. 문혜빈 선생님은 어린





시절 함께 신앙을 키워나갔던 믿음의 친구들과 성도의 본을 보이신 교회학교 선생님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자신을 게임 캐릭터에 대입해서 신앙의 능력 치수를 생각해보고, 내가 보완해야 할 교회 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사회에 활기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오랜 비대면 예배의 여파 때문인지 어린이들의 신앙에는 아직 생기가 덜 깃든 듯합니다. 이제 초등부에 남은 숙제는 어린이들의 마음에 신앙의 생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는 신앙의 열정이 초등부 어린이들의 삶 속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태풍이 지나간 자리, 무너진 곳이 보수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린이들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REAL CHURCH



양육반 시작

청소년부(이하 '영중등대')는 지난 3월 새학기를 시작하며 중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양육반을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과 지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몰랐던 내용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고, 헷갈렸던 내용은 다시 바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 있던 내용은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따로 반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아이들이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기도 부담스러워 하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교회에 오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거두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지만 적극적으로 성경에 대해 탐구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세상을 밝게 빛낼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에 희망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양육반 M.T

지난 5월 20~21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양육반 친구들이 강화도 웨슬리 수도원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1박 2일로 함께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신경써야 할 것들도 많았지만,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와 문제없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양육반 MT를 통하여 서로 몰랐던 친구들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 두 학년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게임들을 통하여 단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양육반 MT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모이는 활동들을 점점 활성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 아직 코로나19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두려움과,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영중등대와 우리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기를 잘 보낸다는 것의 의미



부활절 전의 40일의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이라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2022년의 영중젊은이교회에서도 사순절을 보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순절 동안, 여러 차례 걸쳐 '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지영 청년
(젊은이교회 속장)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죄'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 분별해 내기가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특정한 환경에 있었고, 특정한 사람과 있었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고 합리화하게 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영중젊은이교회에서는 여러 차례의 설교를 통해 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청년의 때에 죄를 올바르게 인지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를 한 번 가벼이 여기게 되면 그 죄가 점점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스스로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엔 자신이 너무나도 악한 자여서 차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는 어떤 죄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더불어 예배 중에 다 같이 속회를 하며 나눔을 하는 '함께나눔예배'를 통해서도 청년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영중젊은이교회에서는 사순절 동안에 각 속회별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몇몇 청년들의 나눔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이 유독 한 장 한 장의 내용이 길었다는 나눔도 있었고, 오히려 그렇기에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깊이



▲ 4월 함께나눔예배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특송 후 모임



▲ 부활절 기념 성경공부



▲ 속장 MT



▲ 속회 모임



▲ 예배팀 모임

묵상하게 되었다는 나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는 속회 대항전으로 요한복음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청년들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속회 대항전 성경 퀴즈대회를 통하여 속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퀴즈에 참여하면서 즐겁게 교제를 나누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꽃들과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푸르름을 통해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절의 흐름을 생각하다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부활절기를 잘 보낸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며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삶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월 함께나눔예배



영 중 계 시 판

YEONGDEUNGPO CENTRAL METHODIST CHURCH



영중교회학교 사순절 작품공모전

영중교회학교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작품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유치부부터 젊은이교회까지 각 부서에서 글쓰기, 그림그리기,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출품하였고 4월 10일(주일) 본당 1층 쉼터 전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시상은 각 부서별로 진행되었는데 '유치부~유년부' 부문에는 대상 한시윤(초3), 최우수상 박주안(7세), 우수상 이예은(초1), '초등부~젊은이교회' 부문에서는 대상 이예슬(초6), 최우수상 김서영(초5), 우수상 김가영(초4)이 수상하였다. 나머지 참가자 모두에게 장려상이 수여되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작품으로 표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순절 영성집회 & 특별새벽기도회

사순절을 맞이하여 3인 3색 영성집회(3/30 이현식 목사님, 4/6 최태수 목사님, 4/13 한웅재 목사님)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였다. 온 교우가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다. 사순절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



웨슬리수도원 페인트칠 작업

봄을 맞아하여 4월 2일, 웨슬리 수도원 페인트칠 작업을 진행하였다.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수도원을 위해 애써주신 남선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



담임목사님 성역 30주년 근속상

4월 21일, 서울남연회에서 최태수 담임목사님 성역 30주년 근속 시상식이 있었다. 목회자로서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애써주신 담임목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새아기 환영과 축복



▲ 4.24 장해나 · 장리나
(부모 : 장세욱, 박유리)



▲ 4.24 이재원
(부모 : 이진석, 조혜정)



▲ 5.1 권지운
(부모 : 권준형, 김 선)



▲ 5.1 성루희
(부모 : 성인모, 맹은정)



▲ 5.1 조찬준
(부모 : 조한목, 송지애)

유아 세례식

어린이 주일이었던 5월 1일, 3부 예배 중 유아 세례식이 진행되었다. 세례받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축하 드리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길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번호	이름	생년	부모	번호	이름	생년	부모
1	강태윤	2020	강성훈, 박소미	6	이채원	2020	이진석, 조혜정
2	권지운	2020	권준형, 김 선	7	장리나	2021	장세욱, 박유리
3	박정민	2018	박윤희, 박성근	8	장해나	2021	장세욱, 박유리
4	성루희	2021	성인모, 맹은정	9	조찬준	2022	조한목, 송지애
5	이하은	2020	이충휘, 정다혜	10	최서하	2020	최희일, 양화영



▲ 강태윤



▲ 권지운



▲ 박정민



▲ 성루희



▲ 이하은



▲ 이채원



▲ 장리나



▲ 장해나



▲ 조찬준



▲ 최서하

효도상 관련 시상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일 3부 예배 시 효도상 시상이 있었다. 이도재 원로장로께서 30년 후원 감사패(5/8)를, 김인태 권사께서 효도상(5/15)을 받으셨다.



연합속회

지난 5월 27일 강화 웨슬리수도원에서 3년만에 함께한 야외연합속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연합속회는 참석하신 성도님들 모두 기쁘고 은혜 가득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회복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성중 목사님께서 중보기도를 인도해주셨는데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가정과 개인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으로 찰밥과 여러 반찬이 가득한 도시락을 맛있게 먹은 후, 김성중 목사님과 김민기 목사님의 재치 있는 말씀씨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은 참석하신 성도님들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서 게임과 보물찾기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술술 부는 좋은 날씨에 서로 안고 풍선 터뜨리기도 하였는데 권사님들이 서로를 부둥켜안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해맑은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인원은 52명이며 1등 믿음상, 2등 소망상, 3등 사랑상, 4등 기쁨상 상품도 골고루 돌아가게 드리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참석하신 분께 타올을 선물로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강화 웨슬리 수도원에서 뜻깊고 행복한 연합속회였으며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복된 시간이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 연합속장 인미숙 권사)



젊은부부 모임

5월 29일, 영중카페에서 본 교회 젊은부부 모임이 있었다. 김성중 목사 가정을 비롯해 젊은부부 10가정이 모여 맛있는 음식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혼부부들만의 고충과 애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 모임은 앞으로 매달 한 번씩 진행될 예정이다.



교우소식

YEONGDEUNGPO CENTRAL METHODIST CHURCH



이사

- 허석현, 조영주 권사(서교2속)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 이범석, 이동연 권사(분당속)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감사

- 홍천수 장로, 김용순 권사(반포속)
범사 감사 떡 준비
- 故 염주원 권사 유가족
장례 후 떡 준비
- 조항연 장로, 임재신 권사(분당속)
범사 감사 떡 준비
- 박종운, 지미선 권사(문래속)
범사 감사 떡 준비
- 박규현 장로, 김선숙 권사(서교1속)
장로취임 감사 수건 준비
- 신승민 목사, 이스라 사모
목사안수 감사 빵 준비

장례

- 박종운 권사(문래속) 부친상
(지미선 권사 시부상) 3/25
- 염주원 권사(삼환속) 소천
(김종근 장로 남편상, 염진영·염승준 권사 부친상,
최성용 권사 장인상, 최윤정 집사 시부상) 3/26
- 김교란 권사(래미안1속) 소천 3/29
- 이금숙 집사(유원속) 모친상 5/17
- 이대운 장로(분당속) 소천
(이동연 권사·이동욱 집사 부친상,
이범석 권사 장인상) 5/22
- 이애자 권사(일산속) 소천
(안종경 장로 부인상) 6/4
- 조윤정 권사(강마을1속) 모친상
(이성태 권사 장모상) 6/19

새 교우

- 이형석 집사(남) 영등포구 국회대로 597
- 이지현 집사(여) 영등포구 국회대로 597
- 임화자 성도(여)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2022년 전교인 필독 독서운동

3분기 7 · 8 · 9월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왜 나는 예전과 달라진 게 없을까요?”

이 책은 이미 예수를 영접했다고 믿지만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 저자가 작성하고 써 내려간 책이다.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들에 주목하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만남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피고 있다.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를 잘 모르고,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며 이럴 때 우리는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내면의 장애물을 바라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가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치유책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면 성도는 자신만의 생명의 스토리들이 생기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한다. 인생의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분이지만, 변화에 마음을 열고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성인 필독도서

가.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김형국 지음 / 생명의 말씀사

나. 독서 기간 : 2022년 3/4분기(7월 ~ 9월)

믿음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당 종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오해는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교정되어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

※ 2022년 한 해 동안 '분기별 1권' 필독도서를 함께 읽는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도서는 교회 내에서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고 이용이 제한되었으니, 직접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영등포중앙교회

영중소식 2022 여름 |

발행처 영등포중앙교회

발행인 최태수

편집인 조영주 신승민

편집위원

김요한 김성일 최웅기 김선정

김성희b 박선숙 권지선

제작 주심기획